촛불의 시, 오월 바다로 타오르다

예술로 만나는 오월

5 광주전남작가회의 오월문학제

5·18 기억·오월정신 계승 참여하기
5·18묘역 일원·금남로 등에서 개최
시산문 걸개시화전·시노래 콘서트 등
문학제 본 행사는 20일 5·18 기록관서

광주전남작가회의 주최로 30일까지 개최되는 오월문학제는 전국적으로 타올랐던 촛불 항쟁의 뜻을 오월 민중항쟁의 맥락에서 찾아보는 데 초점을 둔다. 〈광주전남작가회의 제공〉

촛불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힌다. 지난해 개최됐던 촛불집회는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정치혁명'이자 '시민혁명'이기도 했다.

촛불은 글을 쓰는 문인들에게는 좋은 소재다. 많은 시인과 작가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촛불 바다'라고 명명한 그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박관서)는 문학의 이름으로 오월을 기리기 위해 오월문학제를 개최한다.

광주시· 5·18기념재단·5·18행사위원회 후원으로 31일까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묘역 일원에서 개최되는 오월문학제는 '촛불의 시, 오월 바다로 타오르다' 주제로 그날의 뜻을 되새긴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오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행사는 전국적으로 타올랐던 촛불 항쟁의 뜻을 오월 민중항쟁의 맥락에서 찾아보자는 데 의미를 둔다. 이를 위해 '오월문학포럼'을 시작으로 전국 문인들이 참석하는 개막식과 오월문학상 시상식, 오월문학 시노래콘서트, 시산문 걸개시화전, 5·18사적지답사 및 참배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5·18 구 묘역과 신묘역 일대, 금남로 일대에서는 지난 1일부터 작가회의 회원들의 시와 산문, 역대 5·18문학상 수상작들을 형상화한 걸개 시화작품 100여 점이 전시 중에 있다. 작가회의는 시화전을 통해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문학이 감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매개로 오월 정신을 되새긴다는 복안이다.

오월문학제 본 행사는 오는 20일(오후 3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강당(구 가톨릭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식전행사로 예정된 오월문학심포지엄(오후 3시)은 소설가인 채희윤 광주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역사 속의 항쟁과 문학을 조명한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형수 문학평론가의 '아시아의 민중항쟁과 문학', 이명원 문학평론가의 '4·19의거와 문학', 김동현 문학평론가의 '4·3항쟁과 문학', 조진태 시인의 '오월항쟁과 문학', 맹문재 시인의 '촛불항쟁과 문학'이 예정돼 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오월문학제 개막식과 5·18문학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펼쳐지는 '오월문학 시노래콘서트'는 시와 노래로 하나되는 시간이다. '시하나노래하나'와 '내벗소리예술단'의 시노래 공연이 펼쳐지며, 한국작가회의 전국 지회 회원 초청 '시산문낭송'이 있을 예정이다.

저녁에는 '오월항쟁 추모문학의 밤'(오후 7시)이 개최된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광주를 찾은 작가들이 금남로 한식당 '참뫼'에 모여 오월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이튿날 21일(오전 9시)에는 문인들의 사적지 답사 및 추모식이 진행된다. 신묘역 참배와 구묘역 추모식을 갖고 묘역 일대를 둘러보며, 오월항쟁의 현장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할 예정이다. 문의 062-523-7830.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태후 작 '병풍산 정상에서'

담빛창고 예술창고

내일 '오르간과 성악의 만남' 특별공연
담양 10경 '바람이 부는 풍경' 기획전

소프라노 김선희

바리톤 공병우

신록이 푸르른 5월, 담양 담빛예술창고(이하 담빛창고)가 봄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음악 공연과 전시를 마련한다.

담빛창고는 17일 오후 6~7시 '오르간과 성악의 만남' 특별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내 유일 대나무파이프 오르간과 성악가들의 화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소프라노 김선희, 바리톤 공병우씨를 비롯해 바이올린 김도연, 플루트 박다연, 오르간 송영훈 등이 출연한다. 칸타빌레 어린이중창단(김가은·김명지·이서영·여명원·정승민)도 참여해 무대를 풍성하게 한다.

송영훈 오르가니스트가 찬송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을 연주하며 문을 연다. 이어 김선희 씨와 칸타빌레 어린이중창단이 앤드루 웨버의 'Pie Jesu'를 함께 부른다. 김도연씨는 집시음악 '몰도바'를, 박다연씨는 클로드 볼링의 재즈곡 '바로크 앤드 블루'를 연주할 예정이다.

솔로곡으로 김선희씨는 '아베 마리아', '그리운 금강산'을, 공병우씨는 비제의 '신의 어린양', 헨델의 '그리운 나무 그늘'을 선사하며 두 사람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을 함께 부른다.

같은날 전국 작가들이 담양10경을 주제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전 '바람이 부는 풍경'을 시작한다.

오는 7월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구지회·라규채·박순철·박태후·백범영·왕열·이길우·이이남·조환·하성흡 등 작가 10명이 참여해 회화·사진·미디어·설치, 등 25여점을 공개한다.

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길·죽녹원·추월산·병풍산·삼인산·금성산성·가마골생태공원·용흥사계곡·소쇄원 등 담양 10경과 문화를 인문학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구지회 작가는 '메타세콰이어 길'을 주목했다. 작품에 나무를 보고 서 있는 사람을 등장시켜 실제 방문객들이 나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그린 작품이다. 박태후 작가는 색의 농도를 달리하며 병풍산자락을 표현했다. 작품 '병풍산 정상에서'는 멀수록 희미해지는 산을 통해 자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이이남 작가는 용흥사 계곡을 소재삼아 5분30초 분량 미디어아트작품 '용흥사계곡'을 전시한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는 한낮 더위를 잠시 잊게 해준다.

그밖에 라규채 작가는 수많은 점들로 금성산성을 묘사하며 수천년 역사를 표현했고, 가마골 산세와 등산객을 아기자기하게 표현한 '가마골을 걷다'를 출품한다.

한편, 담빛창고는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 '제1회 청년작가 지원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전국 만 50세 이하 작가로 회화·사진·미디어 등 장르에는 제한이 없다.

오는 6월6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dambit85@hanmail.net)로 신청서(담양군 홈페이지)를 접수받으며 대작위주 작품 이미지 등 포트폴리오를 함께 내면 된다. 6월12일 최종 합격자 3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가는 부스전 형식으로 7월12일부터 8월30일까지 전시를 연다. 문의 061-383-824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대 BK21플러스 문화융합관광 사업단
장웅조 교수 초청 '예술기업가 정신…' 강의

전남대 'BK21플러스 문화융합관광 사업단'(단장 강신겸·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이 16일(오후 6시) 용지관(414호)에서 전문가 초청강연을 개최한다.

'What is Arts Entrepreneurship?(예술기업가정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초청강연의 강사는 홍익대 예술경영학과 장웅조 교수〈사진〉다.

장 교수는 서울대에서 중문학 학사와 공연예술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예술정책 및 경영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시애틀대학교의 공연예술 및 예술리더십 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소규모 예술단체 경영과 정책연구, 예술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현재는 한국 문화예술경영학회의 학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의062-530-4087.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제2회 정남진 신인 문학상' 작품 공모
7월 15일까지 … 창작시 5~10편

장흥은 한국문학특구이자 문림(文林)의 고장이다. 이청준(1939~2008) 작가를 비롯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이 100여명이나 될 정도로 현대문학의 산실로 자리잡았다.

우리 시단에 새로운 가능성을 고양할 역량 있는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정남진 신인 문학상이 올해로 제2회째를 맞았다.

장흥군과 한국문학특구포럼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장흥문화원과 계간 '시산맥'이 주관하는 '제2회 정남진 신인 문학상'이 7월 15일까지 작품 공모에 들어간다.

공모 분야는 시 분야로, 창작 시 5편 이상 10편 이내다. 응모 자격은 신인(단, 재등단 희망자 포함)에 한정하며 상금은 200만원이다.

한편 당선자는 계간 '시산맥' 등단 시인으로 인정되며, 등단 후의 작품 활동을 지원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장흥에서 개최되는 한국문학특구포럼에서 열린다. 문의 02-764-8722, 061-863-6362, www.jh-culture.or.kr.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중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가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맛의향연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